



대전 ·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무결점 안전한 현장

풍림산업(주) - 금강엑슬루타워 현장

취재 | 최종덕 기자

시공계획 단계부터 “안전작업 표준화”

이곳 현장에서는 새로운 공종이 시작되기 전부터 안전작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이 수립된다. “안전작업 표준화”가 이때 작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지침과 안전지침을 별도로 계획되는 것과는 다르게 상세부 시공지침에 안전수칙, 위험요인 관리, 위험성평가 등 안전작업을 고려하여 세밀한 계획이 사전에 만들어진다. 또 이 상세부 시공지침을 토대로 단위 공종을 세분화해서 작업안전절차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시공팀과 함께 안전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절차서는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되면서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공유한다.

꾸준한 사전 안전관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작업 전 각 팀별로 대표자가 주관하는 TBM활동은 기본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가 되면 협력사소장, 각 팀별 부서장이 모여서 금일, 명일 작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일안전공정회의’를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상황을 사전에 제거한다.

인력 통제 그리고 위험점 발생 최소화로 3대 다발재해 근절

하루에 출입하는 인원들이 1,000여명이 넘다보니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현장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와 현장의 정문 출입문을 연계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 즉 현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규채용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받은 바코드를 사용해서 들어와야 한다. 이는 신규채용교육이 누락되지 않고, 협력업체의 고용보험 신고누락을 방지하는 이중적 효과도 가져진다.

시설에 있어서도 이들의 철저함은 그대로이다. 금강엑셀루타워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3·4 운동’이 그중 대표적인 무재해 운동이다. 이 운동은 ‘안전참여 지키기’, ‘안전시설 지키기’, ‘안전기본 지키기’ 등 3가지 지키기 운동과 ‘개구부 없애기’, ‘불량발판 없애기’, ‘비접지 없애기’, ‘틈새 없애기’ 등 4가지 없애기 운동을 합친 것이다. 좋은 예가 PCS폼 시스템이다.

이는 초고층 아파트 현장이다 보니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양시 바람 등으로 추락, 낙하, 비레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없애고 안전작업을 위한 공법으로 레일을 설치하여 유압으로 촘촘히 설치된 PCS폼 구조 시스템을 이동시키며 작업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때 PL창호와 마감공사도 동시에 시행되면서 한 치의 추락위험도 발생시키지 않는 작업 방법이다.

인간을 사랑하자

현장을 다니다보면 근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현장 입구 꽃길과 휴게실도 그러거니와 승차감과 안전성을 고려한 리프트카도 근로자를 위해 투자한 흔적이다.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용변과 청결을 해결하기 위한 비대가 설치된 화장실 문화 개선과 마음대로 씻을 수 있도록 한 샤워장과 탈의실은 현장 근로자의 외형도 변화시켰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씻지 못해 땀냄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꺼려한다. 그러나

대청댐까지 시원하게 뻗은 물줄기처럼 탁 트인 조망,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듯 유유히 흐르는 금강, 대전의 미래가 한눈에 펼쳐진 듯 보이는 도심의 웅장한 모습.

완공되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이곳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엑셀루타워 아파트 현장이다.

풍림산업(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곳 현장은 36층 4개동, 50층 8개동 총 2,312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2012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사현장이다보니 지역의 모든 이목이 이곳 현장에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 일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결점의 완벽함’에 집중한다. 안전에 있어 집중 되기는 마찬가지다.

대전·충남 지역의 대표 건설현장으로 자리 잡은 금강엑셀루타워 아파트 현장에서 지금 어떤 안전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 직접 취재해봤다.

씻을 수 있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멧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바로 근로자를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이곳 금강엑슬루타워 감성안전이 공간이 되었다고 보편된다.

이곳의 감성안전은 매주 월요일 아침 '인사나누기', '안아주기'를 비롯해 '직원이 먼저 근로자에게 인사하기', '이름 불러주기' 등 다양하며 이를 통해 안전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다.

E+2C 운동 통해 더욱 발전된 안전현장 구현할 것

이렇게 지역의 대표 건설현장이라는 자부심, 최신 시스템, 철저한 안전관리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 현장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은 'E+2C운동'이다. 이 운동은 Clean(청결), Communication(의사소통), Education(근로자교육) 등 안전의 기본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E+2C운동'이 현장에 자리잡는다면 더욱 발전된 안전현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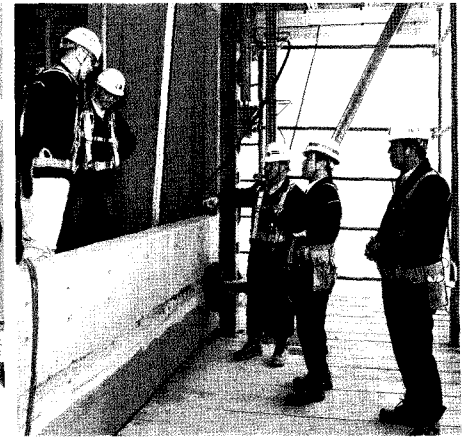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고의 안전현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금강엑슬루타워 아파트 현장. 현장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온 무재해 사업장의 명예가 앞으로 2012년 1월 완공 때까지 계속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현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



▲ 안전성·승차감 최고의 리프트



▲ 현장 근로자의 소리를 직접 듣는 김동환 소장



▲ PCS홀 위에서의 공정회의



김 동 환 소장

관심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는 근로자와 직원이 한 방향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산물입니다.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남은 2년 동안 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해나갔으면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 근로자들도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무재해 준공, 안전한 현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성안전을 중시 여기며 안전계획을 이끌어 온 것도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 하나, 눈길 한 번, 발길 한걸음이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영 중 안전차장

안전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안전이라 함은 인정하여 위험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우리가 말하는 안전은 위험이 없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태의 작업환경 조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은 안전관리자만의 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현장 구성원 전체의 일이자 과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직원 및 근로자 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무재해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확인입니다. 누구나 다 "OK" 해도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의심해보야 안전은 비로써 확보된다고 봅니다.